

안녕하세요, 우간다에서 소식 전합니다.

2025년은 저희에게 바쁘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작된 신학교 부지 관련 소송(35년 전에 신학교에 땅을 판 사람의 후손이, 그 당시 매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을 뺏어가고 신경을 쏟게 하며, 저희 선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윤 선교사는 좀 더 신학교 사역에 집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학기마다 매주 세 과목을 강의하고, 주일 설교가 없으면 매주 월요일 채플 설교를 자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학생들 그룹 성경 공부(GBS) 리더 모임도 인도하였습니다. 강의 세 과목 중 한두 과목은 예전에 가르치지 않았던 과목인지라, 다른 여러 일로 바쁜 와중에 미리 강의 노트를 준비하지 못한 탓에, 매주 새로운 강의안 준비하랴 강의하랴, 녹록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 선교사 역시 신학교 회계 업무에, 게스트하우스 관리, 외부에서 오는 채플 설교자들 식사 대접, 신학교 방문자들 대접 등등, 어떨 때는 윤 선교사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룹성경공부 리더모임



강의

신학교 사역, 특히 주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자주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학생들에게 기초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과 관련해서 어디서 배우거나 들어 본 적도 없어서 신학교에 오다보니 신학 기초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아 성경 기초지식도 부족해 보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려고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요약해서 제출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는 요약한 범위 안에서 퀴즈를 내는데, 답을 제대로 맞히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요약 과제를 할 때조차도 제대로 혹은 진지하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니 강의 진도를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와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학생 중 다수가 영어가 일상어가 아닌 나라들(콩고, 르완다, 탄자니아, 부룬디) 출신이다 보니, 수업 중 어떤 내용에 대해 공을 들여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같은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이도 영어가 능숙지 않고, 배우는 학생도 영어가 익숙지 않다 보니,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실력이 늘어 마지막 학기가 될 즈음에는 웬만하면 수업을 잘 따라오는 것 같아 위안을 삼습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은 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알게 되어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다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교 훈련을 위해 매일 새벽 경건회 시간에 학생들이 설교하게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2천 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요즘 시대, 오늘 어떻게 적용할지, 신학교 교실 안에서, 식당에서, 기숙사에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입학한지 꽤 되어도 여전히 막연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정도의 설교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에는 열심인데, 교회 밖 자기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삶을 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적용이 부족하다” 지적을 해주면,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어떤 학생이 다른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가르침과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설교에서 적용과 실천에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과 가르침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이 선교비 후원을 해주셔서, 작년 첫 학기에는 13명, 두 번째 학기에는 19명에게 (학생 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분) 학비를 후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세 명이 신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학비를 후원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왔습니다.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편지 마지막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데 필요한 학비를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전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회



마을 거리 청소

윤선교사는 작년 11월 말에 지난 10년간의 학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좀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민족신학교(ANTS)는 지난 해 말에 교육부로부터 BA Degree (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가르칠 과목들에 대해 인증받는 과정만 통과하면, 올 8월 학기에는 신입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도 시작하고, 신학과 학사 과정도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기도해주세요 >>

1. 이번 1월 우간다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런 선거 때마다 정국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침 1월에 신학교가 개학하게 되는데, 신입생 모집과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주세요.
2. 신학과 BA Degree 과정에 오는 8월 학기부터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 남아 있는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학생들 학비 후원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신학교 직원 숙소 두 동을 건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4. 소송 중에 있는 신학교 부지 문제가 하루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5. 저희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나가는 제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독립기념일 행사



감사절 예배 후

<< 추신 >>

선교비 (신학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이름 만으로는 어떤 분인지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ㅇㅇ), (이ㅇㅇ), (이ㅇㅇ)

우간다 브웨렝가에서

윤재승 조은숙



**All Nations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A.N.T.S.**

Youtube: @antsug Facebook: Ants Uganda
P.O.Box 84 Kisubi Uganda (256)0707396619
Website: ants.ac email: admin@ants.ac / antcug@yahoo.com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모든민족신학교’ (A.N.T.S.) 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의 학비(약 300달러/학기)를 위해

한 달에 5만 원씩을 후원해줄 동역자, 100명을 찾고
있습니다. (한오백 동역자)

신학교 운영을 위해

한 달에 1만 원씩을 후원해줄 동역자, 1,000명을 찾고
있습니다. (한일천 동역자)

후원계좌 : 신한은행 56100138244970 윤재승



선교사 연락처

<https://blog.naver.com/yunejs>

yunejs@gmail.com

카톡: yunejs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